

실속없는 ‘한방’...흐름 뒤집는 ‘결정력’은 없었다

KIA 2025 시즌결산

(2) 타선

OPS는 상위권...WPA는 음수, 숫자보다 무뎠던 공격력
득점권 타율 0.250 최하위·잔루 4위, 찬스마다 멈춘 타선
당겨치기 0.379 1위 vs 밀어치기 0.249 꼴찌, 극단적 패턴



장타는 있었지만, 승부를 바꾸는 한 방은 없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2025시즌 타선은 ‘수치’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다. 팀 타율 0.258(7위), OPS 0.734(4위), 홈런 144개(2위)로 장타 중심의 공격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화려한 지표 뒤에는 ‘결정력 부재’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득점권 타율 0.250(리그 최하위), 팀 WPA(승리기여도) -0.30(7위)은 찬스 앞에서 멈춘 방망이의 현실을 드러냈다.

시즌 초반부터 방망이는 불안했다. 김도영 등 주축들의 연쇄적인 부상 이탈이 공격 흐름을 흔들었다.

3-4월 KIA의 팀 타율은 0.250으로 6위, 득점권 타율은 0.255(9위)로 부진했다. 5월에 소폭 올랐지만, 타선의 기복은 여전했다. 공격의 리듬이 잡힌 시점은 6월이었다. 팀 타율 0.271, OPS 0.776으로 월간 리그 1위에 올랐다.

이 시기 ‘합평 타이거즈’라 불린 2군 출신 김석환·고종욱·김호령 등이 공백을 메우며 타선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 기간 KIA는 15승 2무 7패, 승률(0.682) 1위를 기록하며 시즌 반등의

불씨를 지폈다.

그러나 불꽃은 오래가지 못했다. 7월부터 타격 밸런스가 급격히 흔들리며 OPS는 0.736으로 하락했다. 8월엔 홈런 1위로 장타는 폭발했지만, 응집력이 사라졌다. 9월에는 팀 타율(0.225), OPS(0.661)이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다. 결국 7월 초 2위까지 올랐던 팀 순위는 정규리그 최종 8위로 마감했다.

결정적인 문제는 ‘기회에서의 무기력’이었다. 6월을 제외하고 시즌 내내 득점권 타율이 리그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승부처마다 번번히 범타로 막히며 찬스를 날렸다.

팀 잔루는 리그 4번째로 많았고, 출루 후 득점으로 이어지는 비율(RS%)은 27.8%(8위)로 낮았다. 출루는 했지만 홈으로 돌아온 주자는 적었다. 한 점을 짜내는 희생번트(43개)도 리그 9위에 그쳐, ‘작은 야구’가 부족했다. 도루는 77개(9위)에 그쳤고, 시도조차 리그 3번째로 적었다. 공격의 움직임이 느렸고, 장타력 이외의 득점 루트는 거의 없었다.

타격 접근의 단조로움도 드러났다.

KIA는 장타 중심의 팀 컬러답게 당겨치는 타구에 강점을 보였다. 그러나 활로가 한쪽으로 고정되자 상대 투수들이 바깥쪽 승부로 맞섰다. 그 결과 밀어친 타구 타율이 0.249로 리그 최하위. 방



최형우



박찬호



김호령



오선우 (KIA 타이거즈 제공)

향성 불균형이 심했고, 외곽존 변화구 대응력이 취약했다. 당겨치기 잘못이 아니라, 대응 폭이 좁아진 것이 문제였다.

삼진도 리그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루킹 삼진(329개) 갯수는 리그 최다였고, 비율(27.2%) 역시 평균(23.6%)을 훌쩍 넘는다.

풀카운트 승부에서의 ‘결정구 대응력’이 치명적이었다. 헛스윙보다 ‘방망이를 내지 못한 삼진’이 많았다는 점은 타격 접근이 소극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홈과 원정의 격차도 뚜렷했다.

광주 홈에서는 타율 0.266·OPS 0.748로 리그 중

1·OPS 0.721로 떨어지며 득점 효율이 급감했다. 게다가 득점권 타율은 0.237(리그 최하위), 공격 흐름이 자주 끊겼다.

팀 내 중심 타자들의 명암도 극명하게 갈렸다. ‘해결사’ 최형우는 타율 0.307·OPS 0.928·wRC+ 157.6으로 20시즌 차에도 견재함을 과시했다.

박찬호는 WAR 4.56으로 팀 내 1위를 기록하며 리드오프로서 꾸준히 제 몫을 했다.

외국인 타자 위즈덤은 35홈런으로 파워를 증명했지만, 저조한 득점권 타율이 뼈아팠다.

무엇보다 지난해 정규리그 MVP 김도영의 부재가 타선 전반의 힘을 약화시켰다. 개막전 헬스 트림 부상 이후 세 차례 이탈로 고작 30경기 출전

에 그쳤다.

반면 ‘수비 원통’ 김호령은 타율 0.283, 94안타로 커리어하이로 작성하며 공격에서도 눈을 떴다. 오선우 역시 18홈런으로 새 얼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다만 리그 최다 삼진을 기록한 점은 분명 보완이 필요하다.

결국 KIA 타선은 ‘장타의 팀’이었지만 ‘연결의 팀’은 아니었다. OPS는 리그 상위권이었지만 WPA는 음수였다. 수치와 결과 사이의 괴리는 시즌 내내 이어졌다.

수많은 기회를 놓친 KIA의 공격력은 숫자보다 무뎠다. 가장 중요한 ‘결정력’은 내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홍철 기자

KIA 성영탁, 생애 첫 태극마크

11월 체코·일본 평가전 K-BASEBALL SERIES 합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불펜투수 성영탁(사진)이 생애 첫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다.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12일 체코와 일본을 상대로 열리는 K-BASEBALL SERIES에 참가하는 대표팀의 명단을 확정했다.

대표팀은 투수 18명, 포수 3명, 야수 14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성영탁은 이번 명단에 포함된 KIA 선수 중 유일하다.

그는 올 시즌 45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E RA) 1.55, 3승 2패 7홀드를 기록하며 팀 마운드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특히 신인답지 않은 과감한 승부와 완공 조절, 그리고 빼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매 경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번 대표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하 WBC)을 앞두고 옥석을



K-BASEBALL SERIES는 내달 8-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체코 대표팀과의 2경기로 시작되며, 15-16일 도호돔에서 일본 대표팀과의 2경기를 치른다. /주홍철 기자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선수들의 정규시즌 성적, 국제대회 경험,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단을 꾸렸다.

수비 안정화·포트2 수성...‘파라과이전 필승 이유’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비해 ‘고난도 모의고사’로 치른 브라질전에서 ‘낙제점’을 받은 홍명보호가 파라과이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 10일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0-5로 대패한 터라 홍명보호에 파라과이전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경기가.

세계적인 스타들과 격전할 기량 차를 절감하고서 가라앉았을 선수단 분위기를 다잡고 파라과이전 승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파라과이 역시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 때보다 강한 상대에게 더 치열하게 부딪쳐보려는 의지와 끈기가 태극전사들에게 요구된다.

월드컵 조 추첨 포트 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파라과이전에서 ‘필승’해야 하는 이유다.

북중미 월드컵은 48개국을 4개 포트(12개국씩)로 나눠 추첨을 통해 포트별 한 팀씩 같은 조에 배정한다.

개최 3개국을 제외하고 FIFA 랭킹 1-9위는 포트1, 10-23위는 포트2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포트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강팀을

브라질전 참패 홍명보호, 오늘 오후 8시 파라과이 상대 평가전



손흥민이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공식훈련에서 밝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의 현재 랭킹은 23위로, 포트2 끝자리에 걸려 있다. 파라과이에도 진다면 홍명보호는 24위 에콰도르, 25위 호주 등에 밀려 포트3로 내려갈 수 있다.

홍명보호로서는 브라질전에서 크게 흔들린 수비라인이 파라과이전에서는 제구실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더해 브라질전에서 유효슈팅 1개에 그친 빈공까지 해결해야 홈 팬들 앞에서 시원하게 승전고를 울릴 수 있다.

한국인 A매치 최다 137경기 출전 기록을 세운 브라질전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을 비롯한 공격수들의 발끝에 시선이 쏠린다. /연합뉴스

‘Step up to win’ 팬들과 함께 승리를 위해 도약하다



11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AI페퍼스 시즌 출정식에서 선수단과 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I페퍼스 제공>

AI페퍼스, 팬들과 새 시즌 향해 힘찬 출발

지난 시즌 11승을 거두며 창단 후 최고 성적을 거둔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더 큰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AI페퍼스는 지난 11일 페퍼스타디움에 팬들을 초청해 2025-2026 시즌 출정식을 가졌다.

장소엔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전원이 참석한 출정식에서는 선수들이 시즌 키워드를 담은 아크릴 큐브를 차례로 쌓아 올려 ‘스텝업 블록 타워’를 완성하는 특별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어 오프닝 영상 상영, 팬 환영 인사,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 소개, 감독과 주장의 출사표 발표, 팬 Q&A 토크 콘서트, 치어리더 공연, 단체 사진 촬영, 팬 사인회 등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행사 시작 전에는 포토존과 Q&A 참여 등 사전 프로그램도 운영돼 팬들이 출정식 전부터 뜨거운 현장 분위기를 체험했다.

이번 시즌 AI페퍼스의 슬로건은 ‘Step up to win’(승리를 위해 도약하다)로 지난 시즌 원팀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에서 나아가 팬과 선수단이 하나 돼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편 출정식 행사 종료 후 롯데아울렛 광주 월드컵점에서는 팬 사인회가 진행됐다. 사인회에는 박정영, 고예림, 시마무라 선수가 참여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희중 기자

‘신유빈 활약’ 女탁구, 아시아선수권 중국과 4강

한국 여자탁구가 2025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단체전)에서 홍콩을 제물로 준결승에 올라 중국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석은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지난 12일 인도 부바네스워르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체 8강전에서 2승을 책임진 에이스 신유빈(13위·대한항공)을 앞세워 홍콩을 매치점수 3-1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준결승에 오른 한국은 최강 중국을 상대로 결승 진출을 다툰다.

앞서 열린 남자 단체 8강에선 오상은 감독이 지휘한 한국이 일본에 매치점수 1-3으로 완패했다.

한국 선수들은 중국에 이은 아시아 2인자로 부상한 일본 선수들과 적지 않은 기량 차를 노출하며 조기에 탈락, 5-8위 결정전으로 밀려났다. 한국 남자탁구가 아시아선수권 단체전에서 8강 탈락한 것은 2009년 대회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대회 역시 인도(력나우)에서 열렸다. /연합뉴스